

이 시대의 화두

생명 · 평화 · 상생



우리시대의 대표적 시인이자, 사상가로서 독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지하(62·세계생명문화포럼 공동추진위원장 겸 명지대 석좌교수·사친씨가 20여년동안 끈질긴 천착과 탐구를 지속해온 생명·평화·상생에 대한 이른바 '김지하 사상'의 핵심적 주제를 새롭게 정리해 두권의 책으로 묶었다. <생명학 1·2>가 그것이다. 특히 이 책에는 새만금 사업, 핵폐기물 처리장 설립을 둘러싼 갈등 등 최근의 이슈들에 대한 김씨의 날카로운 해석이 실려 있다.

김씨가 '생명 사상'에 심취하기 시작한 때는 계기가 있었다. 1979년 반공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서울 구치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우연히 감옥 담벽의 시멘트 틈새에서 개가지 나무가 뿌리내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김씨는 이 책 머리에서 "새벽녘 긴 명상중에 움직이지 않는 뚜렷한 한마디는 역시 '생명'임을 확인했다. 생명, 이 얼마나 긴 시간 생명 노래를 불러왔던가?" 라고 출간 소감을 밝힌다. 이어 김씨는 "이 세대의 징표는 삼보 일배일지도 모르겠다. 붉은 악마, 촛불, 새만금반대, 핵반대와 부산 급정산 고속철 반대 등이 이 3파/생태학에서의 제3의 물결에 대한 연속적

'생명학 1·2'

김지하 지음
화남 / 각 1만원



새만금 · 핵폐기장 문제 날카로운 메시지

동학사상 바탕 새 생명환경운동 도출

대응'이라며 유럽식 '생태학'에 대응해 아시아, 특히 동화의 후천개벽을 바탕으로 동·서양 사상을 흡수하려는 '생태학'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1권은 '전환기 증후군', '생명사상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생태정치학자 문순홍 박사가 묻고 김씨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생명사상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김씨는 우선 지난 1995년 6월에 발생한 '삼풍참사'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그는 "삼풍참사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이란 화두와 함께 세계관의 대전환을 요구한 제 3파적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21세기와 생명사회론'이라는 부제가 붙은 2권은 '생명운동으로 죽음의 운명을 넘어가자', '21세기와 우리의 준비: 생명사회론'이라는 담론을 18개의 주제로 쪼개어 생명사상의 외연과 내포를 심층적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생명에 대한 새로운 정의, 생명에 대한 동양적 개념으로서의 기와 신기(身氣), 수운 최제우의 동학사상을 통한 동서문화의 결합을 이야기 한다. 또 현대진화론의 선구자 때아트 드 사트만의 '진화론'과 수운의 '모심사상'을 비교하면서 인간에 대한 재발견을 모색해 낸다.

이어 생명환경운동의 기본철학으로 동학의 '모심사상'과 뉴턴, 해럴드 피셔의 우주관을 비교하며 생명사상의 참모습을 이끌어 낸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육조단경'

육조 혜능 지음 / 청화역주
광문출판사 / 1만3천원

참선수행 최상승선의 지침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견성성불(見性成佛) 스스로의 성품을 보아 깨달음의 가르침이고, 불성(佛性)을 깨우치는 동서양의 수많은 성전 가운데 <육조단경(六祖壇經)>은 가장 직절간명(直截簡明)한 견성오도(見性悟道)의 법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다. 절실한 참선의 성전임을 불지라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생명의 실상(實相)인 진여자성(眞如自性)을 단번에 깨닫는 견성오도를 역설하는 선(禪)과, 언어문자로 성문, 연각, 보살 등 삼승(三乘)의 모든 그릇들을 두루 살펴 밝혀 놓은 교(敎)와, 진여 불성(眞如佛性)이란 우주생명에 온전히 목숨 바쳐 귀의하여 기쁜 마음으로 참구(參究)하는 정토염불(淨土念佛), 이 셋(선, 교, 정토염불)을 원융무애(圓融無礙)하게 두루 통(通)하여, 위없는

의 계정해(戒定慧)를 닦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체법에 연착(染着)하지 않는 무염오(無染汚 : complete detachment)의 수행인 무념(無念 : Nonthought)으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인 반야삼매(般若三昧)를 이룬다거나, 반야비라밀(般若波羅蜜)에 입각하여 정혜일체(定慧一體)를 이루어, 생 각생각에 부처님을 여의지 않는 일상삼매(一相三昧)와 일행삼매(一行三昧 : Single-practice samadhi)를 닦는 것이 최상의 수행법임을 설파하였다. 이와 같은 <육조단경>에 대한 번역과 해설서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우나, 실천수행이 뒷받침되지 않은 학자들에게 의한 것이거나, 현대용어와 문법에 낮은 수행자들에게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40여 년간 정좌불좌(長坐不臥), 일종식(一食)과 지계엄정(持戒嚴正)한 수행자의 삶을 실천하고, 동서고금의 학문에 막힘이 없으신 청화

돈황본 원전 역주 · 해제, 한문엔 한글음

부처님의 깨달음인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소상히 밝힌 책이 <육조단경>이다. 책을 번역하고 주를 단 청화(淸華) 큰스님의 머리말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해능대사의 최상승돈교선법(最上乘頓教禪法)인 <육조단경>은, 정보화 사회의 넘쳐나는 정보의 탁류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 인간성존을 일깨우는 최상의 귀감이며, 역사의 무지(無知)를 일깨우는 등불이 될 것이다.

<육조단경>에서 강조되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비단 최상승돈교선법(Theory of sudden enlightenment)뿐만이 아니다. 달마대사로 부터 육조에 이르기까지 순선시대(純禪時代)를 한결같이 면면히 흐르는 자성귀의(自性歸依)를 통한 자성불 신앙(自性佛信仰)의 확립과 이에 따라 자성을 깨닫는 수행법이 있다. 그리해서 일체선악에 따른 '죄의 성품(罪性)'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본성인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통찰하는 무상참회(無相懺悔)를 밝히고, 마음바탕에 그릇됨이 없고, 어지러움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음이 자성

큰스님께서 <육조단경>의 가장 오랜 고본인 돈황본(敦煌本) 원전을 역주하신 <육조단경>은 머리말과 해제에서 이미 단경의 핵심요체를 드러낸다. 일러두기에서 언급된 대로, 해독(解讀)의 편의를 위해 내용에 따라 10절로 구분하고 한글체대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주옥같은 국한문 혼용의 주석문을 달고, 독송의 편의를 위해 모든 한문에 한글음을 부기한 것 등은 스님의 독자에 대한 자비로운 배려라 하겠다.

삼매의 경지에서 엮은 듯한 정적(靜寂)을 느끼게 하는 장정(莊嚴)과 원문과 주석이 동시에 눈에 들어오는 편집, 하나의 오자도 발견하기 힘든 정성이 깃든 책은 가히 손 곁에 가까이 두고 항상 펴 보고 싶은 보배로운 수진(手珍)이다.

핵심을 꿰뚫는 해안으로, 혜능 스님의 인품과 육성을 1,30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의 생명력으로 살려낸 청화 큰스님의 <육조단경> 역주본은 군더더기 없는 직확한 표현과 감성으로, 참선수행 중 최상승선의 지침서로서 더욱 빛난다.

■배광식 / 서울대 치대 교수

이 책은 중국 남종선(南宗禪)의 소의경전이나 다름없는 <육조단경>을, 한국 염불선의 대가인 청화 스님(성문사 조실)이 한글로 역주한 불서이다.

패션 결들인 기행 · 명상서



'이기항 · 화(華)의 구도여행'

이기항 지음
도서출판 BAF / 1만5천원

이 책은 지난 9월 5일 광화문 갤러리에서 열려 호응을 얻었던 이기항 교수(한성대 의생활학부)의 의상전시회 '화(華)'에 선보인 의상들을 사진으로 찍어 모아 엮은 일종의 패션 사진집이다. '삼매에 든 석가모니', '문수보살을 만남', '명상 춤을 추는 여인', '연꽃을 간직한 여인', '모성의 마아부인-인도', '억압의 땅-티베트', '보현보살' 등 의상들마다 제목과 설명을 달아 놓았다. 이 옷들은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선 재동자가 52선식을 친견하기 위해 구뎀여행을 떠났듯 이 교수가 작품 소재를 찾기 위해 여행했던 나라들 속에서 만난 여성의 모습을 불교적으로 재해석했다. 가령 그리스에서 만난 신비로운 분위기의 여인을 떠올리면서 <화엄경>을 간략하게 풀어 찬탄한 '약찬계' 756글자를 옷에 디자인해 그리스풍의 드레스로 만들었다.

베트남 뒷골목 가난한 여인들에서 모티브

를 따른 '사창가의 순결함'은 월남의 민속복식 아오자이에 스텐실로 작업한 안상수체의 <화엄경>을 적어 넣었다. 또 '모성의 마아부인'은 <화엄경> 제 64 변상도를 쪽빛 노방위에 금박으로 스텐실 작업해 연출한 인도의 전통복인 사리다.

사진뿐만 아니라 책 곳곳에는 마음에 새겨 들 만한 경우도 들어 있다. '보살행은 자신이 곧 부처임을 믿고 남을 위하여 살겠다는 큰 마음을 내어 완성되나니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 다함이 없는 시간동안 싫증없이 있어야 하니...' 일부는 경전에서 일부는 일타스님의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에서 발췌했다. 그래서 책장을 끝까지 넘기다보면 단순한 사진집이 아니라 여러나라를 함께 여행한 듯한 기행서이자 명상서라는 느낌이 든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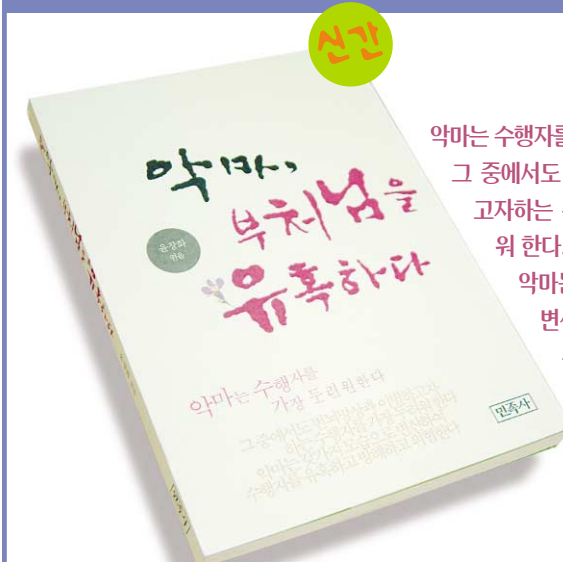
불교 소재 의상사진 곳곳에 경구도

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 다함이 없는 시간동안 싫증없이 있어야 하니...' 일부는 경전에서 일부는 일타스님의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에서 발췌했다. 그래서 책장을 끝까지 넘기다보면 단순한 사진집이 아니라 여러나라를 함께 여행한 듯한 기행서이자 명상서라는 느낌이 든다.

악마는 수행자를 끝없이 유혹한다.

"누이여, 어디로 가려고 하오?"
"어진 이여, 번뇌를 멀리 여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누이여, 이 세상에는 번뇌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멀리 떠나고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차라리 나와 함께 사랑이나 나누면서 즐겁게 삽시다. 늙으면 후회합니다."

"나는 이미 수많은 생애 동안 슬한 자식을 잃어왔고 또 슬한 남자와 헤어진 적이 있으므로 이젠 남자에 대하여 더 이상 미련이 없노라. 나는 모든 애욕의 고통을 떠났고 일체의 무지를 버렸노라. 번뇌망상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어 번뇌의 불꽃을 잠재웠노라."



악마는 수행자를 가장 두려워한다. 그 중에서도 번뇌망상과 이별하고자하는 수행자를 가장 두려워 한다. 악마는 갖가지 모습으로 변신하여 수행자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위협한다.

윤창화 역음/신국판 변형, 223쪽/값 7,000원

근본불교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서.

근본불교 불교입문총서 1



이종표 지음 / 신국판 294쪽 / 값8,500원

대승불교와 관련하여 소승불교비판으로부터 전개되는 불교입문서의 전통적 시각과는 달리 긍정적 시각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아비달마불교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어떠한 의미도 없다.

아비달마불교 불교입문총서 3



권오민 지음 / 신국판 367쪽 / 값9,000원

불타의 팔만사천 법문은 말 그대로 진리에 들어가는 문에 불과하다.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의 해석을 통해 불타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불타교법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아비달마로 일컬어지는 방대한 논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시기의 불교를 아비달마불교라 한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불교신행상식 150가지 왕초보, 불교박사되다



이 책은 주로 신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만 간략히 설명한 책입니다. 예컨대
· 방경, 조실스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 불전은 얼마나 놓아야 합니까?
· 윤달과 불교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적멸보궁은 어떤 곳입니까?
· 전생과 내생은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석지현 · 필지 · 윤창화 지음 4×6판 양장 / 320쪽 / 값 7,500원

경전속에 들어있는 불교명언 300가지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인생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이루 안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석성우 · 석지현 역음 4×6판 양장 / 180쪽 / 값 6,000원

죽은 이를 위하여 49재를 지내는 까닭 영가천도와 49재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49재를 지내면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 책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계사 율주 존신 김수 / 박연진 지음 4×6판 양장 / 216쪽 / 값 6,000원